

경기도 지역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aged in Gyeonggi-do: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Services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조 성 희**^{*}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박 수 선**^{**}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황 경 란**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Cho, Sunhui**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Su Sun**
Gyeonggi Welfare Foundation
Senior Research Fellow **Hwang, Kyoung Ra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지원서비스가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자료 중 50~64세 중장년층 8,695명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중장년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지역 중장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장년,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family relationships of the middle-aged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and how family support services regul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A total of 8,695 middle-aged residents(aged 50 to 64 years) were chosen from among resident-respondents of the needs survey

*주저자: 조성희(shcho@stu.ac.kr), <https://orcid.org/0000-0002-9853-403X>

**교신저자: 박수선(sunyono@seowon.ac.kr), <https://orcid.org/0000-0002-2617-4637>

administered to establish the 4th local social security plan in Gyeonggi-do.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life satisfaction was investiga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ife satisfaction experienced by the middle-aged is slightly higher than the middle level. The lower the difficulty in family relationships, the higher the use of family support services, the more women than men, and the better the economy,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s a moderating variable, family support services significantly moderate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middle-aged on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mprehensively shed light on the difficulties that confront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relationship structure of family support servic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earch f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iddle-aged in Gyeonggi-do.

Key Words: the middle-aged,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family support service, moderating effect

I. 서론

전국의 중장년은 2024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전국 중장년 인구는 12,129,204명(23.4%)이고 경기도는 2,928,944명(22.4%)이며, 2024년에는 전국은 12,962,131명(24.8%), 경기도는 3,322,391명(24.5%)으로 최고치에 이르며, 2025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18). 2020년 현재 중장년 세대란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사이 출생자)와 1990년대에 X세대로 불려왔던 1960~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백종관 외, 2020).

Havighurst(1972)는 6단계로 인생주기를 구분하여, 중·장년층을 30세~60세로 보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로 보았다(김해은, 2020 재인용). 정부부처에서 중장년에 대한 자료와 정책을 발표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등이 있는데, 50세 이상의 연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중년과 장년, 중장년, 신중년 등 다양하며 각각 기준도 달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2021)는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하여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0~64세를 '장년'이라고 정의하고 '5060 장년 고용대책' 발표하였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황경란 외, 2018).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중장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경기도, 2018). 이렇듯 현재 학계나 정부정책에서는 중장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년은 경제발전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로, 가계의 주된 소득자이며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지만 고용불안 등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정책 개입이 필요한 세대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중장년은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가 대표적이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20대에, IMF 외환 위기를 30대에, 경제위기를 40대에 경험하였고, 생애 중 지출

이 가장 많은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직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중장년 세대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고용악화, 사회적 고립, 정책의 사각지대, 행정조직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황경란, 2019). 우선 고용악화 부문에서는 2019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대 중장년의 고용률 하락 폭이 가장 크고, 주로 임시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은 중장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 부문에서는 열악한 고용과 낮은 소득은 이혼 등 가족 단절과 그로 인한 1인 중장년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정책 사각지대 부분에서는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낀 세대'이지만,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복지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행정조직도 없어 복합적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년층은 고용불안, 빈곤, 자녀양육, 주거, 노후준비 등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고 40~50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송인주, 2016), 관련 연구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중장년 시기에 과업을 잘 수행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여부는 가정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방은령, 2001). 만약 중장년 시기가 잘못 수행될 경우, 다음 발달단계인 노년기 사회적 적응 역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김미정·김귀분, 2013).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 받고 있으며(Kahneman & Krueger, 2006; Wang et al., 2014), 최근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이 균형 잡힌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로 높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그러나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에서 한국은 30위에 불과하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소득,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상호 외, 2016), 이상목과 김성연(2012)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50~60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로 경제적 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급격한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해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핵가족 중심의 부양관이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김유경 외, 2018), 중장년 세대는 가족 내외적인 환경 변화 상황에서도 도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최저점을 보인 이후 노년기까지 계속 하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김성아·정해식, 2019)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세대들은 그다 경험한 교육과 환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와 가치관, 행동양식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유운도, 2013),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동일한 객관적인 외부환경에서도 각자의 과거 경험, 가치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이상열·최석재·나용호, 2001)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장년 세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제 중장년 세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장년 세대는 노년기 부모 세대와 청년기 자녀세대의 가운데 낀 '샌드위치 세대'로서 가족 내 이중부양부담을 지니게 되어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김유경 외, 2018), 중장년의 가족관계의 어려움 해결이 고독사로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박수선·이무영, 2017), 중장년 가족관계 영역의 연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친밀감과 사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가족체계를 더 뚜렷하게 원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시 되면서, 이 부문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유지가 힘든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박수선, 2020). 이러한 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가치관과 가족기능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 생활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서비스가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 세대가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된 지역주민욕구조사의 자료 중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장년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구축을 포함한 생활복지 확대에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의 삶의 만족과 가족관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또는 감성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Gilligan & Huebner, 2007), 최근 들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별로 파악하여 각 세대에 알맞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선행연구(김성아·정해식, 2019; 박선숙, 2019)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보면, 성별과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김미정·김귀분, 2013; 김은영·박정윤, 2013; 박영신·김의철, 2011; 박은선, 2014; 방은령, 2001; 홍근미, 2011; 홍승정 외, 2013)을 비롯하여, 경제(황남희, 2020), 건강(배수현·김기연, 2019; 이윤희, 2011; Grossman & Mandl, 2006), 심리(고기숙, 2003; 고숙자, 2020; 박지숙, 2014; 이경은, 2012; 최미경·이영희, 2010), 가족관계(곽금주 외, 2011; 김정민·한경혜, 2004; 이명숙·이미선·이정우, 2003; 양현주, 2005; 유효순, 2016; 진화영, 2020), 사회 참여(임정미, 2020) 부문 등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이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시행된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김미곤 외, 2018)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 30대에 비해 40~50대의 점수가 낮았으며, 60대 이상부터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현저히 낮아져서, 중장년 세대에서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 점수인 U자형을 보이고 노년기에 다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곡선과는 현저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세대의 발달 과업 수행이 현재 사회 환경에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또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현저히 부족하여 중장년 이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만족도가 낮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장년은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세대이며, 본인은 정작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장년 세대인 부모는 빈둥지 중후군 이후 '가득 찬 등지 중후군'이 따르고 이는 딸과 사위가 처갓집 주변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고 부모들은 '샌드위치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홍근미, 2011)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년의 발달과업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고숙자, 2021), 세가지 관점으로 중년기 발달과업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생활과 직업 생활의 관점에서 중년기는 지도적 세대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둘째, 가족 생활주기 관점에서 중년기는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에서 조화롭게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셋째, 개인적 발달관

점에서 중년기는 인생의 유한성을 직면함과 동시에 내적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통합된 자아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 시기로서 중장년 세대의 발달 과업의 성공 여부나 만족 정도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중장년이 발달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더욱 어려운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직업생활 영역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020)에 의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4세이고, 희망하는 근로 상한 연령 평균은 73세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보고서(중앙일보, 2018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은 49.1세로 3년 전 53.2세에 비해 4세 가량 앞당겨졌고, 퇴직 때까지 근무한 비율이 7%대에 불과하여, 60세까지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장년의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되며, 최근 10년간 50~59세의 32.9%가 저임금 근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의 고용률 감소는 이른 퇴직에 기인하며, 중장년의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재취업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측면에서 중장년 세대는 자녀를 돌보고,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며,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과 부담은 중장년 당사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중장년 기혼 남성은 가정경제를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비호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며, 가부장적 권위는 하락했지만 중년 가장이 갖는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박은선, 2014). 현재의 중장년 남성의 경우 생계부양자로서의 과중한 역할부담은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소외로 나타나 중장년 세대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이들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보여 진다(양현주, 2005). 중장년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데 부모들은 중년이 되어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독립적 자아를 탐색해 가는 시기이므로 중장년 세대 가족의 기능의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이명숙 외, 2003).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50대 연령의 1인 가구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 및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과 2015년의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50대 1인가구는 이혼이 29.6%에서 38.4%로 높아졌으며, 2015년 자료에서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50대가 23.9%로 40대의 18.5%와 60대의 14.5%보다 높은데(통계청, 2005, 2015), 이는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

되며 이들의 정서적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에 가족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중장년 세대는 은퇴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제한 속에서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대상이므로,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장년 대상 가족지원서비스와 삶의 만족

한국 사회의 급변과 전환기로서의 중장년 세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장년 세대 가족 역할에 대한 점검과 재정립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는 이들의 가족 내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문제'만이 아닌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인식하여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의 경우 배우자, 가족 및 대인 관계를 강화하고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승, 2014). 중장년 세대는 경제활동 중단 이후 수입이 감소하고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활 범위가 가족관계로 축소되어,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향후 삶의 만족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진화영, 2020).

중장년의 가족 관련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보면, 배우자 동거의 경우 중장년은 결혼한 경우가 미혼이나 사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박선숙, 2019), 중장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가족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최미경·이영희, 2010), Nishizono(1985)는 중년기 우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정 내 역할갈등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년 세대 가족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 가족의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유경 외, 2018), 중장년 세대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에도 본인의 노후 대비를 함께 고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7)고 제안한다.

현재까지 중장년 세대는 복지정책에서는 제외되는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대상으로 보여 진다. 중장년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질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험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박수선·이무영, 2017), 현재 중장년층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이혼 등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 사회보험만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조사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시 고독사 유형별 분석한 결과 50~60대 중

장년이 6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중장년 세대 고독사 대비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로 2021년 ‘제 4기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년 1인가구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첫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2021).

이렇듯 중장년의 가족 관련 어려움과 같은 사회보험 외 생활상 문제를 해결하기에 마련된 복지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황경란, 2019). 중앙정부 중장년 대상 정책은 대부분 고용지원 정책 또는 고용유지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년 세대의 생활지원, 가족관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 방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황경란 외, 2018).

현재 한국의 가족지원서비스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전달체계였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부분이 최근 통합된 형태로 가족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손서희·김미영, 2019). 기관 통합의 목적은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지방분권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의 전환이지만(최은희·장은정, 2017), 지역주민들의 통합된 기관에 대한 자체 인식이 높지 않으며, 본인 가족문제를 기관서비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에 대한 한국 정서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가족지원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중장년 세대의 가족의 구조와 관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긴급한 가족문제를 경험할 때 이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김유경 외,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가족지원 서비스 활성화가 꾸준히 요구되며, 중장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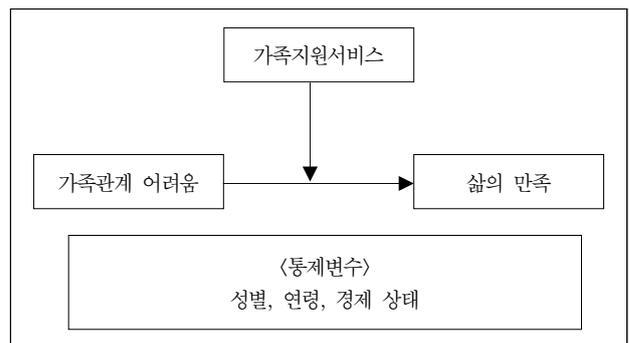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된 지역주민육구조사의 자료 중 주 응답자가 중장년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는 경기도의 각 지역 모두를 포괄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28개 시와 3개

군을 모두 포함하여 각 지역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 지역을 포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중장년의 삶의 만족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의 실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1 면접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응답의 정확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의 전체 27,153명의 자료 중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대로 중장년 세대를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8,695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데이터는 경기도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8년 상반기에 조사가 수행되었고,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한 데이터 점검 과정을 통해 연구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의 삶의 만족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만족에 가족관계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조절변수, 성별, 연령, 경제 상태를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반영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1) 삶의 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장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 중 생활 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만족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의 삶

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형태로 매우 내용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통해 삶의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고 있다. 응답 범주는 “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부터 “10(매우 만족한다)”의 10점 리커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응답값이 클수록 중장년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가족관계 어려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의 수준은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 중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어려움을 묻는 문항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족관계 어려움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중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의 형태로 가족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통해 가족관계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다. 응답 범주는 “1(전혀 어렵지 않다)”부터 “6(매우 어렵다)”의 6점 리커트 형태로 응답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답값이 클수록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가족지원서비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중장년이 경험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 중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영역에 가족관계 어려움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간 관계의 어려움에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족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을 표기해 주세요”의 형태로 질문을 구성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은 이용 의향, 이용 서비스의 인지, 이용 서비스의 신청 여부, 이용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중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1)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2)로 응답을 재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들의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성별, 연령, 경제 상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시점의 만나이를 기준

으로 조사된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경제 상태는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육구조사 중 생활 여건 및 지역사회인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의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경제 상태의 측정 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댁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형태로 가족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응답 범주는 “1(매우 어렵다)”부터 “5(매우 여유롭다)”의 5점 리커트 형태로 응답을 확인하고 있으며, 응답값이 클수록 가족의 경제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중장년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변수인 중장년의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의 관계와 조절회귀분석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조절효과검증을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2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장년이 경험한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중에서는 여성이 5,180명(59.6%)으로 남성 3,515명(40.4%)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분포에서는 중장년의 연령 범위인 50세부터 64세의 연령 범주를 3개의 연령 집단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면, 60~64세인 경우와 55~59세인 경우가 각각 3,141명(36.1%), 3,072명(35.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50~54세인 경우는 2,482명(28.5%)으로 전체 연구집단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

령은 57.38세(표준편차=4.18)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3,515	40.4
	여성	5,180	59.6
연령	50~54	2,482	28.5
	55~59	3,072	35.3
	60~64	3,141	36.1
	평균=57.38(표준편차=4.18)		
교육수준	무학	57	.7
	초등학교 졸업	500	5.8
	중학교 졸업	1,159	13.3
	고등학교 졸업	5,584	64.2
	대학 이상	1,395	16.0
	매우 어려움	787	9.1
경제상태	어려움	1,941	22.3
	중간수준	5,053	58.1
	좋음	866	10.0
	매우 좋음	48	.6
평균=2.71(표준편차=.79)			

연구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에 대한 특성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5,584명(64.2%)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1,395명(16.0%),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1,159명(13.3%)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500명(5.8%)과 무학인 경우 57명(0.7%)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인 상태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5,053명(58.1%)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1,941명(22.3%), 경제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866명(10.0%), 매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787명(9.1%),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48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경제수준에 대한 평균은 2.71(표준편차=.79)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주요 변수인 중장년의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의 특성과 변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장년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은 평균 6.48(표준편차=1.60)로 삶의 만족 측정도구가 10점 리커트 척도 형태의 응답범주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수

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의 수준은 평균 1.54(표준편차=1.06)로 가족관계 어려움의 응답범주가 6점 리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의 수준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어려움의 경우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연구대상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변수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1		
가족지원서비스	.476***	1	
삶의 만족	-.274***	.085***	1
평균	1.54		6.48
표준편차	1.06		1.60

*** $p < .001$

연구대상자인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r = -.274, p < .001$), 삶의 만족과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r = .085, p < .001$). 가족관계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 이용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476, p < .001$).

3. 삶의 만족에 대한 가족관계 어려움의 영향과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어려움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조절변수로, 성별, 연령, 경제상태를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2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절회귀분석 2단계 중 1단계 모형의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경제상태, 가족관계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장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528.128, p < .001$). 또한 중장년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해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해 중장년의 삶의 만족 전체 변량의 약 2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 = .251$).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중 독립변수인 가족관계이 어려움($t = -15.976, p < .001$)과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t = 8.782, p < .001$)는 중장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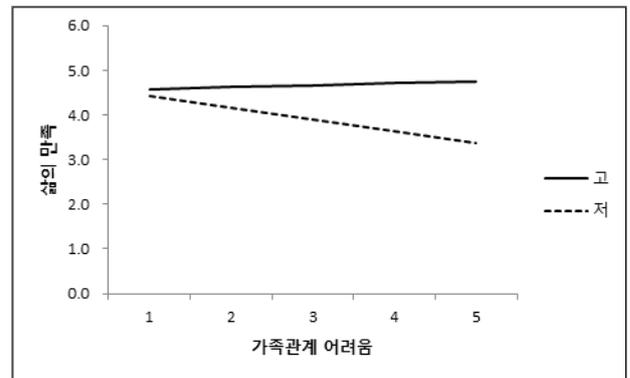
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t=5.049, p<.001$)과 경제상태($t=43.870, p<.001$)가 중장년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연령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t=-1.463, p>.05$). 1단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중장년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변수 중에서는 경제상태($\beta=.432$)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가족관계 어려움($\beta=-.164$), 가족지원서비스($\beta=.087$), 성별($\beta=.047$)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수준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어려움이 중장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절회귀분석 2단계 모형 역시도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임을 나타냈으며($F=489.886, p<.001$), 중장년 삶의 만족 전체 변량의 25.3%를 설명하고 있었다($R^2=.253$). 조절회귀분석 1단계 모형에 비해 가족관계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만족의 변량을 약 0.2%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21.730, $p<.001, R^2$ 변화량=.002). 조절회귀분석의 2단계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중 가족관계 어려움($t=-16.629, p<.001$), 가족관계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의 상호작용항($t=4.662, p<.001$)은 중장년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484, p>.05$). 이를 통하여 조절변수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의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순수조절변수로 판단하여 볼 수 있다. 이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족지원서비스가 완충해주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에 도식한 바와 같이 중장년이 같은 수준의 가족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수준이 높은 집단은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되는 반면,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 수준이 낮은 집단은 가족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게 됨을 의미한다.

<표 3> 삶의 만족의 영향 요인과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

변수	모델 1			모델 2		
	B	β	t	B	β	t
(상수)	3.319		12.629***	4.694		11.888***
성별	.154	.047	5.049***	.156	.048	5.118***
연령	-.005	-.014	-1.463	-.005	-.013	-1.426
경제상태	.878	.432	43.870***	-.878	.432	43.915***
가족관계 어려움(A)	-.248	-.164	-15.976***	-.264	-.175	-16.629***
가족지원서비스(B)	1.205	.087	8.782***	-.156	-.011	-.484
A×B				.309	.111	4.662***
F 변화량		582.128***			21.730***	
F		528.128***			489.886***	
R ² 변화량		.251			.002	
R ²		.251			.253	

* $p<.05$, ** $p<.01$, *** $p<.001$



<그림 2>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 효과

V. 결론 및 제언

현재 중장년 세대는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로 인한 퇴직연령 저하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년기 부모 세대와 청년기 자녀세대의 가운데 낀 세대로서 이중부양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가 전체 1인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되면서 중장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장년 세대의 어려움을 문제가 아닌 사회변화에 따른 과정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활동과 가족관계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가족지원서비스가 두 요인 사이에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는지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된 지역주민욕구조사 자료 중 주응답자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인 8,695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어려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은 10점 만점에 평균 6.48로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은 평균 1.54(표준편차=1.06)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지만 가족관계 어려움의 경우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대상자에 따라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인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만족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삶의 만족과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관계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간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중장년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 모형의 분석에서는 투입된 변수들이 중장년의 삶의 만족 전체 변량의 약 2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중장년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적합성도 중장년 삶의 만족 전체 변량의 25.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가족지원서비스는 중장년이 경험하는 가족관계 어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제 4기 지역 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시행된 지역주민욕구조사에 응답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가족지원서비스가 갖는 관계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첫째,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 낮아진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중장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시기에 알맞은 내용의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중장년 세대는 가족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가족관계의 특징과 어려움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가 구성되고 이를 대상자 본인 중장년층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중장년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밝혀냄으로써, 추후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 타당성 연구에 효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산업복지 안에서 한정되었던 중장년 대상의 복지를 중장년의 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복지적 접근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다. 황경란 외(2018) 연구에서 중장년 세대 전반을 위한 복지로 현행 복지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처럼 복지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 세대를 포함하여, 중장년 세대에게 일자리 위주의 지원이 아닌 정서적, 관계적 측면을 연결한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현재의 일자리 퇴직 후 단순한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성인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당장 개설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장년 대상 가족생활 관련 서비스를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여, 중장년의 긴급한 가족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기반의 정책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장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연결망 조직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50대의 비자발적 고립은 대부분 실직 등 사회에서 위치를 상실하면서 시작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중장년 세대에 해당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 확대,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는 것도 가능한 지원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중장년의 가족관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산과 이로 인한 삶의 만족도 상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급증하는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조기 퇴직이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이 발생하고, 그 후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독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박수선·이무영, 2017), 그들의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사전에 예방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면 고독사로 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는 제한점이 있다. 차후에는 타 지역의 지역사회주민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중장년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차 자료의 특성상 기존 데이터에서 구성된 변수들을 활용해 독립변수를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택한 변수의 문항 자체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구성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해당 시점의 지역주민육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지역 주민 육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성과는 있으나, 앞으로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중장년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화 경향을 조사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주민 육구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한국의 중장년 세대 가족의 변화양상과 맞물려 실천적, 정책적 부문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2018). 경기도
- 2) 고기숙(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고숙자(2021). 중년기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이분화,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산효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21). 2020년 신중년 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 5) 광금주 · 민하영 · 김경은 · 최지영 · 전숙영(2011).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 외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3), 115-133.
- 6) 김경민 · 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7) 김미곤 · 이태진 · 송태민 · 우선희 · 김성아(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김미정 · 김귀분(2013). 중년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19(2), 150-158.
- 9) 김상호 · 정해식 · 임성은 · 김성아(2016).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김성아 · 정해식(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70호, 95-104.
- 11) 김영란 · 장혜경 · 이윤석(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2) 김유경 · 이진숙 · 손서희 · 조성호 · 박신아(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김은영 · 박정윤(2013). 가족의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가족역할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05-124.
- 14) 김해은(2020).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사업이 장년 이용자의 사회참여활동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박선숙(2019).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세대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0(3), 311-330.
- 16) 박수선 · 이무영(2017). 중, 장년 1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9-149.
- 17) 박수선(2020). 생존분석을 활용한 여성의 이혼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박영신 · 김의철(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19) 박은선(2014). 중년 남성의 나이듦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박지승(2014). 신중년층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마음 챙김의 긍정적 효과. 보건복지포럼 208호, 75-85.
- 21) 방은령(2001). 한국 중년 남성들이 말하는 중년기의 의미와 행복 및 삶의 질.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6, 37-60.
- 22) 배수현 · 김기연(2019).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수면의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11-40.
- 23) 백종관 · 안지선 · 최미옥 · 김정연(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과정 운영 개선 방향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24)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25) 보건복지부(2019.2.11).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보도자료.
- 26)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2021).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제 4기).
- 27) 손서희 · 김미영(2019).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통합 서비스 운영 경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1-21. DOI : 10.22626/jkfrma.2019.23.4.001.
- 28) 송인주(2016).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 29) 양현주(2005). 중년기 전업주부의 생생감과 가족관계가 주

-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 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유운도(2013).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유효순(2016). 중·장년층의 가족관계 특성,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이경은(2012). 중년기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이명숙·이미선·이정우(2003).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 가족 역동성 및 가족자원 만족도-안성지역 중·고등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61-76.
- 34) 이상열·최석채·나용호(2001).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고찰. 대한소화기학회지, 7(10), 6-12.
- 35) 이윤희(2011).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인식정도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임정미(2020).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87호, 45-55.
- 37) 중앙일보(2018.12.3). 「“주 일자리 은퇴나이 평균 49.1세”... 고령자 상당수가 재취업하는 곳은」 보도 자료에서 산업은행연구원(2018).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재인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75852#home>.
- 38) 진화영(2020).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87호, 21-34.
- 39) 최미경·이영희(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 지지 및 사회경제상태.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196-204.
- 40) 최은희·장은정(2017). 지방자치단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통합방안 연구-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2), 329-353.
- 41) 통계청(2005,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 2015년.
- 42) 통계청(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43) 통계청(202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44) 홍근미(2011). 중년여성 분노의 다면적 분석을 통한 기독교 상담 방안.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5) 홍승정·윤미경·이세원·안혜경·유시영(2013).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7), 3275-3283. DOI : 10.5762/KAIS.2013.14.7.3275
- 46) 황경란·박수선·안준기·조성희·박혜선(2018). 경기도 중장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 경기복지재단.
- 47) 황경란(2019). 위기의 중장년, 경기도 해법은. G-Welfare Brief 3. 경기복지재단.
- 48) 황경란·박지환(2019).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 49) 황남희(2020). 신중년의 경제 상태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87호, 6-20.
- 50)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51) Gilligan, T.D. & Huebner, S.(2007).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Adolescent Vers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2, 1-16.
- 52) Grossman, S. & Mandle, C. L.(2006). Middle-age adult. In Edelman & Mandle(6th Ed.), Health promotion throughout the life span(p. 548-569). Mosby-Year Book, Inc.
- 53)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54) Kahneman, D. & Krueger, A. B.(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55) Nishizono, H. N.(1985). Depression and neurosis in middle aged.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14(9), 1301-1307.
- 56) Wang, S., Helliwell, J. F., Lee, G. E., Zhou, W., P, C., Barrington-Leigh & Choi, S.(2014).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 Wang 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투 고 일 : 2021년 09월 24일
- 심 사 일 : 2021년 10월 05일
- 계 재 확 정 일 : 2021년 11월 09일